**여러분은 장로교단의 신앙고백서에 의해 심판 받습니까? /찰스피니**

**​**



여러분은 장로교단의 신앙고백서에 의해 심판 받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 의해 심판 받습니까?"(찰스 피니)

지금 나누고 있는 신학적 대화는 대부분 사람들이 추론하는 관점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역자가 크리스천에 대해 정의하기를

“은혜는 조금 있고 악한 면을 더 많이 가진 사람”

이란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정서가 나온 것입니다.

저를 보고 놀라면서

 “왜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완벽주의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 만든 신앙고백서(소요리문답)를 사도 요한이 쓴 성경 말씀과 직접

 대조하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82조.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답: 타락 이후에는 어떤 인간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매일 그것들을 어긴다.” (소요리문답 82조)

1요0309. 하나님에게서 태어 난 누구든지 죄(빗나감)를 저지르지 않느니라,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남아있음이라,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니,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장로교단이 만든 신앙고백서(소요리문답)는 거의 모든 교회가 동의하는 신앙적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공통된 정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장로교단의 신앙고백서가 사도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이 쓴 성경 말씀들과 얼마나

상충되는지 보셨습니까?

신앙고백서는 신앙이 아주 어린 신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말입니까?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로교단의 신앙고백서에 의해 심판 받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 의해 심판 받습니까?"

(찰스 피니의 책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중에서...)

Tags

심판 판단